



삼성 스마트 TV의 게이밍 허브를 통해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델들. 작은 사진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제공하는 LG전자 스마트TV. 사진제공 | 삼성전자·LG전자

콘솔 없이 게임…스마트 TV의 무한진화

〈가정용 게임기〉

고품질 게임이 TV 속으로 들어온다.

TV 제조사들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은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하는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의 인기 클라우드 게임을 이달 말부터 2022년형 스마트 TV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도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등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TV 제조사의 콘텐츠 경쟁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홈 트레이닝, 교육 등에서 게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성 ‘엑스박스 패스’ 제공

삼성전자는 MS와 클라우드 게임에 관한 협약을 맺고 TV 업계 최초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게이밍 허브’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MS의 구독형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게이밍 허브는 삼성 스마트 TV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스트리밍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로, 기존 ‘스마트허브’에 게임 전용 섹션을 신규로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게이밍 허브는 여러 게임 앱 뿐 아니라 최근에 실행한 게임, 인기 게임, 추천 게임 등을 한 화면에서 보여주며,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을 바로 선택해 실행할 수 있다. 게임 관련 동영상을 탐색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한다.

이번 협업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는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엑스박스 콘솔(가정용게임기) 없이도 게이밍 허브를 통해 ‘포르자 호라이즌 5’, ‘헤일로 인피니트’ 같은 엑스박스 독점 게임을 비롯해 100여 개의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필 스펠서 MS 게이밍 CEO(최고경영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게임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으로 이러한 비전이 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엑스박스는 모든 거실에서 최고의 클라우드 게임 경험을 제공하려는 삼성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라며 “하드웨어 개선은 물론, 편의성과 사용성을 대폭 개선한 2022년형 스마트TV로 스포츠 생중계를 보거나 스트리밍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같이 보다 자연스럽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포스 나우’ 도입

삼성전자의 게이밍 허브는 이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엑스박스 뿐 아니라 지포스 나우, 구글 ‘스타디아’ 등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클라우드 게임도 제공한다.

세계 TV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와 경쟁하고 있는 LG전자도 TV 콘텐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웹OS’ 기반의 스마트 TV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는 지포스 나우와 스타디아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세계 최초 올레드 TV인 42인치 ‘올레드 에보’(42C2)를 선보이고, 부산 광안리에서 금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TV로 게임을 즐기려는 유저들을 위한 마케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KT, 누리호 2차 발사 통신·방송 지원…“안정성·품질 강화”

15일 발사 앞두고 만반의 준비

KT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 안정적 통신회선과 방송회선을 지원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누리호는 1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순수 한국 기술로만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다.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우주 발사체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KT 통신회선을 임차해 운용 중이다. 통신회선은 누리호의 발사와 발사체에 대한 비행위치, 비행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가능

하게 한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1차 발사 때보다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 강화했다. 특히, 발사 당일 추적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일부 단일 전송구간은 완벽한 이원화를 완료했다. 제주추적소 전용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에는 백업 무선전송망을 추가로 개통했다.

KT는 또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으며, 발사 당일에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전담요원을 주요 전송시설에 배치한다. 참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



통신지원센터를 나로우주센터 광장에 구축하고, 방송회선을 점검하고 있는 KT 직원들. 사진제공 | KT

상되는 우주발사 전망대, 남열해수욕장, 우주과학관은 이동기지국 차량 2대를 배치하고 무선망 관제를 강화한다.

KT는 누리호가 발사되는 역사적 순간이 전 세계로 원활하게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방송회선 구성도 지원한다. 우주과학관을 메인으로 발사 통제동, 미디어센터, 남도방파제, 우주전망대, 연구동 등 6개소에 방송장비를 구축하며 방송회선은 총 40회선을 구성한다.

지정용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전무)은 “KT는 안정적 통신 지원뿐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코(디지털플랫폼기업)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 우주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NHN, 남해종합건설에 올인원 협업 솔루션 공급

NHN두레이는 남해종합건설에 클라우드 기반 올인원 협업 솔루션 ‘두레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남해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조경, 환경 등 건설 분야에서 30년 간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온 중견 건설업체다. 기존에는 개인 이메일 계정과 개인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에 기반한 협업 기능을 올인원으로 제공하는 ‘두레이!’를 도입하면서 사내 소통에 개선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 캘린더, 화상회의 등의 기능을 통해 서로의 업무 스케줄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필요시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더 효율적 협업이 가능하다. NHN ‘두레이!’는 서울대, 카이스트,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NS홈쇼핑, 한글과컴퓨터, 현대오일뱅크 등 다양한 기업들이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3일(월)		
서울	30/60	20 30	인천	20/30	19 28
강릉	30/30	17 22	대전	30/30	18 27
광주	30/30	18 26	대구	30/30	17 24
창원	20/30	17 24	제주	30/60	20 23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4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